최종상, 윤명희 선교 기도 편지 2022 년 6 월 3 일, 영국 브렌트우드

6/2-5 나흘동안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 세의 즉위 70 주년 기념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군림한 군주인데 금년 96 세 십니다. 영국과 영연방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여왕은 매년 크리스마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의 재임 중에 영국교회의 교세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국교인 성공회의 수장으로서 이 나라를 다시 신앙의 기반 위에 세우는데 필요한 역할을 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암노스 후임 대표

그동안 암노스 사역을 더 발전시킬 제 후임자를 찾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 월 말 암노스 영국 이사회는 한 영국인 목사를 '인터뷰'했습니다. 2016 년부터 매년 어라이즈 전도활동으로 동역해 온 40 대 중반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보아온 영국 사역자 중에서 가장 전도에 열정이 있고, 영국 재복음화에 사명을 느끼는 분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알려진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노스 사역의 중요성을 보고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6/14 일 그 교회 장로들과 저희 암노스 이사들이 만나 동역할 전략을 의논하려 합니다. 함께 주님의 뜻을 찾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2 년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어라이즈 전도활동을 6/20-26 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의 영향이 있으므로 예년과 달리 기간도 줄이고 또 참가자도 영국에서만 모집합니다. 암노스가 준비한 영상으로 미리 전도훈련 내용을 숙지하여 오게 하고, 일주일 동안 낮에는 초청 교회 주변에서 가가호호 방문전도, 어린이 전도, 거리 전도도 하고, 저녁에는 기도회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복음의 씨를 뿌리며 추수도 많이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시 귀국하고 귀임

지난 3/24 일 귀국하였다가 5/28 일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몇가지 사역과 작년 3 주 입원후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주된 귀국 목적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건강에 문제가 없이 회복되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님과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국 중 거의 매 주일 설교했고 주중에도 강의와 모임이 늘 있었는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CGNTV 와의 프로젝트

CGNTV 의 퐁당(Fondant) 에서 강의한 12 편의 영상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보시고 전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회복해야할 사명 전도 (일곱 강의)
https://www.fondant.kr/vod/KMAA67524030400010000001
교회개척 길라잡이 (다섯 강의)
https://www.fondant.kr/vod/KMAA74078030100010000001

CGNTV 에서 보다 큰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출생부터 순교까지의 사역현장을 찾아가 그의 사역과 삶과 신학을 소개하는 다큐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내년 4 월에 이스라엘, 터어키, 그리스, 로마 등 현장을 찾아 갑니다. 그때 설명할 내용을 금년 6 월 말까지 글로 써야 합니다. CGNTV 에서 정성을 쏟는 프로젝트이고, 목회자, 선교사, 전도자, 신학자로서의 바울의 다면적 초상을 그려내고 그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한국교회에 시기적으로 요긴한 일이므로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글로 전하는 사역...

주님께서 점점 글 쓰는 일로 저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정길 목사님과의 대담집 <나라와 교회를 생각한다>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홍목사님께서 "자유"를 주제로 얇은 책을 내시려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자유가 공격과 제한을 받고, 방종이나 무례로 흐르는 경우도 많아 성경적 관점에서 자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밝히는 작업을 하려 하시는데, 제가 보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독자들과 외국어로 번역까지 염두에 두시므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께서 제게도 몇가지 주제를 출판할 부담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며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지 100 일째 되는 날입니다. 잘 방어해 왔지만 도시들은 파괴되고 동부의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이 생겨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 교회는 유럽 재복음화에도 역할이 큽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6 월 16 일은 선교사로 출발한지 만 43 년이 됩니다. 주님과 기도와 지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과 교회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 드림
danieljschae@hanmail.net,
+44 7900 363263; 010 2664 1436 (핸, 카톡)